

# 安東金氏大宗會報

發行人: 金泰亨  
編輯人: 金命載  
印刷人: 宋載勳

發行處  
安東金氏大宗會  
서울시東大門區鐵橋1洞112-49  
電話: 244-3717  
對替計座: 010983-31-0513119  
郵便番號: 130-091

## 大宗會第二十八回定期總會開催



光監事로부  
터 94年度  
財務決算監  
查報告에서  
會計執行이  
잘 되어있  
음과 더욱이  
流用된 二

지난 5월 6日(土曜  
日)史蹟地인 洪陵영회  
원에서 京鄕各地에서  
參席한 三百余宗親들  
이 모여 第28回定期總  
會를 盛況裡에 舉行하  
였다. 會順에 따라 相  
副會長의 成員報告  
와 開會宣言이 있은 다  
음 國民儀禮와 先祖英  
靈에 對한 默念을 올리  
고 이어서 宗事에 勞苦  
하신 宗親 다섯분(名單  
別記參照)께 感謝牌을  
授與하고 이어서 後世  
를 맡아갈 젊은 宗親中  
學究에 熱中하여 博士  
學位와 高試合格을 取  
得한 宗人들 다섯분에  
게는 祝賀牌을 授與함  
으로 參席宗親들의 뜨  
거운 拍手로 이를 激勵  
하였다. 다음 會順에  
따라 會長任의 人事말  
씀이 있었으며 아울러  
總會會議錄에 署名할  
會員을 會長任에서 指  
名하였는데 按廉使公  
派 聖會宗親과 密直使  
公派의 在沼宗親을 指  
名하고 94年度事業經  
過報告를 相副會長  
이 하였다. 다음에 在

阡七百萬元을 完全  
保한 데 對하여는 會長  
任의 徹底한 監督과 執  
行部의 努力이 컸음을  
말하였다. 다음으로  
94 財務決算報告書를  
總務가 朗讀하며 說明  
을 하자 翼元公派 先會  
宗親이 緊急動議를 提  
請發言權을 얻어 말하  
기를 지극 總務가 決算  
書를 朗讀하며 說明하  
는데 이는 앞서 監查報  
告에서도 會計執行이  
잘 되었음과 더욱 二阡  
七百萬元의 流用金가  
지도 完全確保 되었다  
는 發表가 있었음으로  
이는 書面으로 代身할  
것을 말씀드리고 또 뒤  
에 이어질 95年度歲入  
歲出豫算案도 지난번  
理事會議에서 綿密히  
檢討하여 決議된 것임  
으로 原案대로 通過할  
것을 動議하자 滿場一  
致 拍手로 承認하였  
다. 이어서 95年度業  
務計劃을 會長任에서  
發表하니 다시 全員 拍  
手로 承認하였다. 끝  
으로 討議事項과 余談  
을 나누고 閉會를 宣言

하고 準備된 도시락을  
三三五五 자리를 같이  
하여 들면서 德談들을  
나누며 和氣霽靄한 雰  
圍氣속에 下午 1時 30  
分頃 散會하였다.

- 感謝牌을 받은 宗親
1. 忠南燕岐郡宗親 會代表 金海濱
  2. 翼元公派 金泰珍
  3. 都評議公派 金熙國
  4. 翼元公派 金泰暉

- 祝賀牌을 받은 宗親
1. 典書公派 博 士學位取得 金相教
  2. 正儀公派 博 士學位取得 金泰會
  3. 提學公派 博 士學位取得 金俊植
  4. 按廉使公派 行政高試合格 金泰均
  5. 郡事公派 司 法高試合格 金澤俊

### 會長 人事 및 大宗會運營方針

1. 微風에 新綠이 나부끼는 싱그러운 오늘  
우리 安東金氏 第28回 大宗會 總會를 開催함에  
있어 農繁期의 바쁨과 公私間의 所關事를 모두  
물리치고 京鄕各地에서 이와 같이 많이 參席하  
신 宗親들의 崇祖陸族의 崇高한 精神에 對하여  
저는 無限한 尊敬과 感謝를 드리는 바입니다.  
會報에도 報道한 바와 같이 우리 大宗會는 名實  
共히 忠實하게 大發展을 이룩하고 盤石같이 安  
定된 位置에 놓여져 있음은 實로 慶賀하는 바  
입니다.

오늘은 1994年度 決算狀況과 1995年  
度 豫算案을 檢討하여 承認하는 등 眞摯한 討  
議를 하서어 大宗會發展에 크게 이바지하여 주  
시기 바랍니다.  
2. 大宗會의 지난해 事業中 重要한 事項은  
그동안 數年間에 施行한 爲先事業關係로 會館  
賃貸保證金中에서 流用된 金額 2,700萬圓의  
充當을 爲하여 會長은 大宗會運營에 있어 從來  
有給常任副會長자리를 崙會氏別世后 補充하지  
않고 또 清掃員을 減員하여 두 사람의 給料支  
出을 中斷하고 大宗會에서 職員들에게 中食을  
炊事하여 提供하던 것을 廢止하는 등 經常費支

出을 極度로 節減함으로써 賃貸保證金中 流用  
하였던 2,700萬圓 全額을 完全 充當하여  
앞으로는 大宗會豫算이 黑字運營을 하게 된 것  
을 多幸으로 生覺하는 바입니다. 위에서 말한  
爲先事業으로 累積된 金額 2,700萬圓은 모  
두 理事會에서 決議되고 總會承認을 거쳐서 한  
것이 지會長 재가 任意로 流用한 것이 아니라  
것을 알아야 할 것입니다.

3. 위와같이 緊縮된 살림을 하면서도 時急  
한 爲先事業으로 清明節에 檜谷洞 竹州朴氏할  
머니 山所의 祭절이 狹小하여 時享때 子孫들이  
질을할 場所가 없는 墓(壇)域을 忠烈公할아버지  
墓域처럼 2百余名이 同時에 질을할 수 있게  
擴張하고 牀石을 改安하는 事業을 特志宗親인  
燕岐郡宗親會와 大宗會 金泰珍理事의 獻誠金으  
로 完工한 데 對하여 感謝를 드리는 바입니다.  
4. 十數年前부터 忠烈公할아버지의 傳記를  
發刊하자고 하던 일에 對하여 저는 홀륭한 忠  
烈公할아버지의 業績을 顯揚하는 것이 子孫된  
道理를 다하는 일이라고 生覺하여 꼭 이 일을



成就할 것을 決心하고 그동안 이에 對한 資料를  
蒐集하려고 努力하였으며 이를 編纂할 史學家도  
物色하였으나 이 傳記는 우리 後孫들이 義務的  
으로 購讀할 것을 前提로 發刊하여야 하고 先  
決問題는 資料蒐集부터 發刊까지 必要한 基金이  
最少限 5阡余萬圓이 所要된다고 判斷되어 이  
基金確保가 先行되지 않고서는 實現性없는 空  
論으로 그칠것이 明若觀火하므로 爲先事業이  
一段落되었다고 보는 이제부터는 大宗會經常費  
中에서 每年 1,500萬圓 程度씩 積立할 것을  
計劃하고 今年度豫算에서 傳記發刊基金積立金  
으로 1,500萬圓을 樹立하고 實現段階에 突  
入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經常費에서 每年 積立하는 한便 特  
志宗親들의 贊助金도 받아들이기로 하고 저도  
略少하나마 金壹百萬圓을 먼저 贊助金으로 내  
놓겠습니다.

이 事業을 成事하기 爲하여서는 基金을 積立  
하면서 資料蒐集과 史學家를 選定하는 일이 併  
行되어야 하므로 끊임없이 계속 努力하여야 할  
것입니다.

5. 從來 施行하던 獎學事業은 現基金 6阡  
余萬圓을 앞으로 5·6年間 定期預金을 하고  
그 元利金이 1億圓 程度가 되면 그때부터 大  
學生中에서 選拔하여 1人當 1百萬圓 程度씩  
支給하기로 하자고 지난 理事會에서 決議된바  
있어 總會에서 承認할 境遇 獎學事業은 一旦  
中止할 것입니다.

6. 우리 大宗會는 今年度부터 黑字運營이  
可能하게 되었으므로 爲先事業中 未盡한 것을  
施行코자 하는 1995年度 事業計劃은  
(1) 檜谷洞 竹州朴氏할머니 管理舍 食水斷切로  
인한 우물과기  
(2) 陵洞忠烈公 墓所 進入路 里程標 設置(安  
東市부터 3個所)  
(3) 忠烈公 傳記 發刊基金 設立  
(4) 會館 補修工事(復道 化粧室等)  
(5) 遺虛牌閣 鐵柵改修  
(6) 陵洞墓庭 난간 石柵設置  
(7) 檜谷洞齋室 앞마당 包裝工事  
(8) 神道碑閣鐵柵改修 等인바 이 事業은 모두  
來年度(1996年)總會前에 이루어질 것을 諒  
知하시기바라며 國內外 安東金氏 宗親여러분들  
의 健康과 더욱 發展하심을 祈願하는 바입니  
다.

1995년 5월 6日

安東金氏 大宗會  
會長 金泰亨







# 白凡金九先生 第四十六週忌追慕式奉行

지난 6월 26日午前 11時 孝昌園 白凡金九先生 墓前에서 第46週忌追慕式을 多數의 政府要人과 各政黨代表 및 獨立運動團體長 元老來賓 門中宗親들이 參席한 가운데 奉行하였음.

백범김 구선생 약전 선생은 서기 1876년 8월 29日(음 7월 11日) 황해도 해주로부터 80리 되는 백운방 텃밭에서 안동을 본관으로 한 아버지 김공순영과 어머니 현공과씨 나원씨의 몸에서 의아들로 태어나 어려서 한문을 배웠고 17세 때에 과거보러 갔다가 풍기가 추잡하므로 분개하며 돌아와 18세에 동학에 들어 접수를 이 끌고서 탐관오리들을 상대로 싸우다가 안중근 의사의 부친 안태후공에게로 가서 『고이선』 선생의 지도를 받으니 20세였

다. 그해 8월 명성황후가 일본인의 손에 시해되자 울분한 생각을 못참고 표연히 길을 떠나 암투쟁을 건너 만주 각처를 유랑하다가 국내에서 의병들이 일어났다는 소식을 듣고 돌아와 이듬해 2월 안악군 치하포에서 일본군의 치하포에서 일단의 군사간첩 유괴중우의 토전양광이란 자를 죽임으로써 지탄해 국모죽인 원한을 풀기는 하였으

나 그로 인해 내부의 명령으로 체포되었던 인천감옥에 갇힌 동안 어머니의 식모살이를 하며 옥마라지를 한 것은 특기할 일이지니와 선생은 사형 결정 후 집행 보류 등 앞날이 확정되지 않은 채로 23세 3월 9일 밤에 탈출을 감행하여 방랑하다가 마곡사에서 중이 된 것도 또한 기구한 운명이었다.

다음해 속세로 돌아와 아버지를 여의고 예수를 믿고 『최준례』 처녀와 결혼하니 29세, 30세에 을사 매국늑약이 체결되자 서울로 올라와 『이준』들과 함께 조약철회를 상소했으며 다시 이어 『이동녕』 『안창호』들과 신민회를 조직하여 구국운동을 일으켰었다.

36세 때에 『사내』 중독 암살미수사건에 앞서 『안중근』 사건의 관련자로 또 다시 체포되어 17년 징역 판결을 받고 옥에 있을 때 왜경은 선생을 산발의 들머이 같은 자라 했으나 어머니는 찾아와 내가 경기감사 한 것보다 더 기쁘다 했으며 선생은 항상 눈물로 기도하되 우리 나라가 독립되어 우리 정부청사를 쓰고 있다는 즐거움을 누릴 수 있게 해주소서 하더니 7월에 가석방되어 몇 해 동안 농민 교육에 전력했었다.

44세 때에 3·1만세 운동이 일어나자 분연히 결심하고서 조국을 떠나 상해로 건너가 우리 임시정부의 격무 국장에 취임한데서부터 조국 광복을 위한 해외 활동이 시작되었거니와 51세에 임시정부 국무부장이 되니 국내에서는 민족 단일전선으로 신간회가 결성된 해로 이듬해에 한국 독립당을 조직하니 광주 학생 독립운동이 일어났던 해였다.

독립의 목적을 달성키 위해서는 과파의 방범을 쓸 수 밖에 없었어 56세 되던 해 겨울 『이봉창』 의사에 게 일본 천황을 저격하는 데에 쓸 자금과 서류탄들을 주어 동경으로 보내어 이듬해 1932년 1월 8일 동경에서 거사케 했으나 불행부중하고 의사는 체포되어 왜의 법정에서 사형 선고를 받고 10월 10일 청춘 32세에 순국했다.

선생은 계속하여 다시 『윤봉길』 의사로 하여금 같은 해 4월 29일 상해 홍구공원에서 중국 침략의 괴수 『백천』 대장 등을 폭살케 하여 우리 민족의 애국 투쟁 정신을 떨친 바 있었으며, 의사는 왜의 형장에서 12월 19일 25세로 순국했으니 애절한 일이었다.

제적 신임을 얻어 『장개석』 총통과 서로 만나 나양 군관학교에 독립군 특별반을 두어 한 중합작으로 항일투쟁에 대처할 것을 합의했으며 63세 때에 임시정부 주석, 그해 5월 일본 특무기관의 끈두가 시가 된 반역자의 총탄에 맞아 중태에 빠졌다가 소생하니 줄기찬 뜻은 꺾일 수 없었다.

다음해에 임시정부를 중경으로 옮기고 각 정당을 통하여 한국 독립당 집행위원장에 취임, 한국광복군을 조직하고 일본에 선전포고 했으며 카이로 회담에서도 독립 보장을 받았던 바 69세 되던 1945년 8월 15일 일본이 항복하므로 역사는 하루 아침에 바뀌어 졌으나 다만 세상을 떠났던 동지들, 어머니, 부인, 만아들이 광복을 같이 맞지 못하는 것이 슬펐다.

임시정부 국무의원들과 함께 11월 23일에 조국 땅을 밟으니 망명 생활 27년간, 돌아온 직후 모스크바 삼상회의에서 발표한 한국 신탁통치안에 거족적 반대 운동을 전개했으며 이듬해 71세에는 민족의 원 총리, 다음 해에는 국민의회의 부주석에 선임되었다.

왔으나 그것은 어디까지나 민족적 의무였던 것이다.

그로부터 통일론은 차츰 더 멀어만 갔건마는 선생은 변함도 굽힘도 없이 말과 글로 외치며 무릇 역사 행진이란 그 방향을 출발점에서부터 바로잡지 않으면 안됨을 애타게 부르짖다가 그 이듬해 73세 되던 1949년 6월 26일 정오에 흉한의 저격을 입어 숨지시니 국민은 지도자를 잃었고 통일 과업은 역사의 속제로 남겨져 날이 갈수록 앞길은 어두워졌다. 그러나 우리들의 가슴에 새긴 선생의 뜻과 정신은 언제나 길이 사라지지 않을 것이다.

나니 그 것은 어디까지나 민족적 의무였던 것이다.

남한만의 선거를 실시하게 되자 조국의 분단이 영구화할 것을 걱정하여 적극 반대하였고 72세 되던 해 4월 19일에는 통일을 위하여 남북 협상을 시도함에까지 나섰던 것이니 비록 뜻대로 되지는 않

밖에는 없다. 내 과거의 70평생을 이 소원을 위해 살아왔고, 현재에도 이 소원 때문에 살고 있고, 미래에도 나는 이 소원을 달하려고 살 것이다. 독립이 없는 백성으로 70평생에 설움과 부끄러움과 애담을 받은 나에게 세상에 가장 좋은 것이 완전하게 자주독립한 나라의 백성으로 살아보

나니 일찍이 우리 독립정부의 문지가 되기를 원했거니와, 그것은 우리 나라가 독립국만 되면 나는 그 나라에 가장 미천한 자가 되어 도 좋다는 뜻이다. 왜 그런고 하면, 독립한 제 나라의 빈천이 남의 밑에 사는 부귀보다 기쁘고 영광스럽고 희망이 많기 때문이다.

옛날 일본에 갔던 박제상(朴堤上)이, 『내 차라리 계림의 개 돼지가 될지언정 왜 왕(倭王)의 신하로 부귀를 누리지 않겠다』 한 것이 그의 진성이었던 것을 나는 안다.

제상은 왜왕의 높은 벼슬과 많은 재물을 준다는 것도 물리치고 달게 죽임을 받았으니, 그것은 『차라리 내 나라의 귀신이 되리라』 함에서였다.

나는 공자·석가·예수의 도를 배웠고, 그들은 성인으로 숭배하거나 그들과 합하여서 세운 천당·극락이 있다 하더라도, 그것이 우리 민족이 세운 나라가 아닐진대, 우리 민족은 그 나라로 끌고 들어가지 아니할 것이다.

왜 그런고 하면, 피와 역사를 같이하는 민족이란 완연히 있는 것이어서 내 몸이 남의 몸이 못됨과 같이, 이 민족이 저 민족이 될 수는 없는 것은 마치 형제도 한집에서 살기에 어려움이 있는 것과 같은 것이다. 둘이상이 합하여서 하나가 되자면 하나는 높고 하나는 낮아서, 하나는 위에 있어서 명명하고 하나는 밑에 있어서 복종하는 것이 근본 문제가 되는 것이다.

이에 대하여 일부 소위 좌익의 무리는 혈통의 조국을 부인하고, 소위 사상의 조국을 운운하며, 혈족의 동포를 무시하고, 소위 사상의 동무와 프로레타리아트의 국제적 계급을 주장하며, 민족주의라면 마치 이미 진리권(眞理權) 외에 떨어진 생각인 것같이 말하고 있다.

심히 어리석은 생각이다. 철학도 변하고 정치·경제의 학설도 일시적인 것이나, 민족의 혈통은 영구적이다. 일찍 어느 민족 안에 서나 종교로 혹은 학설로 혹은 경제·정치적 이해의 충돌로 두 파 세 파로 갈려서 피로써

싸운 일이 없는 민족이 없거니와, 지내어 놓고 보면 그것은 바람과 같이 지나가는 일시적인 것이요, 민족은 필경 바람 간 뒤의 초목 모양으로 뿌리와 가지를 서로 걸고 한 수풀을 이루어 살고 있다.

오늘날 소위 좌우의 이란 것도 결국 영원한 혈통의 바다에 일어나는 일시적인 풍파에 불과하다는 것을 잊어서는 아니된다.

이 모양으로 모든 사상도 가고 신앙도 변한다. 그러나 혈통적인 민족만이 영원히 성취할 수 있는 공동 운명체인 연애 연합한 몸으로 이 땅 위에 남는 것이다.

세계 인류가 네오, 내오 없이 한집이 되어 사는 것은 좋은 일이요, 인류의 최고요, 최후의 희망이요, 이상이다. 그러나 이것은 멀고 먼 장래에 바랄 것이요, 현실의 일은 아니다. 사해 동포의 크고 아름다운 목표를 향하여 인류가 향상하고 전진하는 노력을 하는 것은 좋은 일이요, 마땅히 할 일이나, 이것도 현실을 떠나서는 안 되는 일이나, 현실의 진리는 민족마다 최선의 국가를 이루어, 최선의 문화를 낳아 길러서, 다른 민족과 서로 바꾸고 서로 돕는 일이다.

紙面關係로 廣告掲載 載 勿 諒 知 希 祈 焉 矣



宗中動靜

貫鄉巡禮

지난 4월 30일 按廉使公 六代孫인 參奉公 諱公 彦後孫一同은 派 祖인 按廉使公墓所와 忠愍祠 金時敏將軍 祠堂을 參拜하였다.

이날 行事는 在京宗親會와 山川廣基宗親會가 함께 夫婦同伴으로 參席하여 祖上의 崇 祖理念과 宗親間의 友 誼를 다졌다.

장은 8旬의 高齡에도 不拘하고 按廉使公의 不事二君의 忠節을 40 分間이나 說明한 다음 當신께서 지으신 按廉 使公 할아버지의 追慕 詩를 이렇게 읽어 주셨

1. 천지도 고령적 천지요 일월도 고령적 일월이라 천지 일월은 고 금의 고려로되 어찌타 도산은 의구한데 인걸이 간데 없 음 서러워하라

2. 수양산 나린물 이이제의 원수(原水)인데 주야에 쉬지않 고 도산으로 흐른뜻은 오은의 위국충 절을 못내 서러워함인 가!

이와같이 詩를 朗頌 하니 뜨거운 拍手를 하였다. 이어서 出發하여 忠愍祠로 向했는데 提學公派 前會長 相喆 氏께서 同乘하시어 忠 愍祠를 參拜하고 相喆 氏께서 時敏將軍의 불 타는 愛國忠節에 壬辰 倭亂을 勝利로 이끌고 殉國의 忠義精神을 말 씀해 주시었다.

조금이나마 慰勞가 되 었나 싶으며 이러한 行 事를 繼續하여 崇祖睦 族精神涵養에 變함이 없기를 所願하는 바이 다. 아울러 이같은 뜻

宗親會(花樹會)定期總 會를 江陵市內에 位置 한 그린소주앞 遊園地 松林에서 百餘 會員이 參席한 가운데 盛況裡 에 舉行하였다.

在京扶餘柳村花樹會定期總會開催

지난 5월 21日 在京 扶餘柳村花樹會定期總 會를 牛耳洞 遊園地에 서 家族同伴으로 百餘 會員이 參席하여 午前 11時에 開會하였다.

大宗會理事이며 柳村 花樹會 會長인 泰雄會 長의 人事에 이어 泰桓 總務로부터 94年度 花 樹會 業務經過報告와 亮會監事의 監查報告 가 있는 後 94年度 財務 決算報告와 95年度 豫 算案을 通過하고 準備 된 點心을 한자리에서 들 러 앉아 맛있게 들면서 德談들을 나누고 마련 된 繕物들을 돌리며 娛 樂도 겸하여 餘興을 즐 기고 下午 3時에 散會 하였다.



文靖公派諱錫祖墓碣立石

翼元公 曾孫 文靖公 諱錫의 六代孫 通德郎 諱錫祖께서 京畿江華 島에 率家入島하여 子 孫扶植之計하니 江華 島에 歲垂四百餘年이 었다.

江陵宗親會定期總會開催

지난 5월 13日 江陵 宗親會(花樹會)定期總 會를 江陵市內에 位置 한 그린소주앞 遊園地 松林에서 百餘 會員이 參席한 가운데 盛況裡 에 舉行하였다.

宗親會(花樹會)定期總 會를 江陵市內에 位置 한 그린소주앞 遊園地 松林에서 百餘 會員이 參席한 가운데 盛況裡 에 舉行하였다.

또한 이날은 夫婦가 같이 參席하여 서로 손 잡고 德談을 나누는 정 거움은 덕담이 없지 않 아왔다. 여기 江陵 宗親會는 翼元公 諱士衡의 셋째 曾孫 牧使 公 諱碩의 後孫인데 牧 使公께서는 아들을 두 분을 두시니 만이 壽童이요 둘째는 壽卿이 시다. 여기 江陵地域 (嶺東)에 居住하는 宗親들은 모두가 壽卿祖의 後孫으로 壽卿祖의 셋째 아들인 主簿公 諱沂의 孫들이다. 主簿公의 孫代에 이르러서는 三孝二烈이 輩出 되어 嶺東의 名門家로 登場하였으며 主簿公 六代孫 諱夢相 號槐軒 夫婦孝烈旌闈가 三綱 錄事蹟에 詳見할 수 있 는 훌륭한 宗門으로 江陵地域에서 崇祖睦族 의 理念을 敦篤히 지켜 오면서 隆盛히 發展하 고 있음은 우리 安東金 門의 자량이 아닐 수 없다.

大邱宗親會第六回定期總會開催

지난 5월 14日 大邱 宗親會第六回定期總會 를 三百餘 宗親들이 參席한 가운데 盛況裡에 開會하였다.

宗親會(花樹會)定期總 會를 江陵市內에 位置 한 그린소주앞 遊園地 松林에서 百餘 會員이 參席한 가운데 盛況裡 에 舉行하였다.

翼元公派定期總會開催

지난 5월 6日 翼元 公派定期總會를 洪陵 營內에서 大宗會 定 期總會가 끝난 다음 開 催하였다.

宗親會(花樹會)定期總 會를 江陵市內에 位置 한 그린소주앞 遊園地 松林에서 百餘 會員이 參席한 가운데 盛況裡 에 舉行하였다.

宗親會(花樹會)定期總 會를 江陵市內에 位置 한 그린소주앞 遊園地 松林에서 百餘 會員이 參席한 가운데 盛況裡 에 舉行하였다.

忠北槐山郡宗親會定期總會開催

지난 3월 27日 安東 金氏槐山郡宗親會 第 44回定期總會를 增平 宮殿禮式場에서 多數 의 宗親들이 參席한 가 운데 盛大히 舉行하였 다.

宗親會(花樹會)定期總 會를 江陵市內에 位置 한 그린소주앞 遊園地 松林에서 百餘 會員이 參席한 가운데 盛況裡 에 舉行하였다.

清州宗親會第48回定期總會開催

지난 5월 28日 清州 宗親會第48回定期總會 를 50餘 宗親들이 參席

宗親會(花樹會)定期總 會를 江陵市內에 位置 한 그린소주앞 遊園地 松林에서 百餘 會員이 參席한 가운데 盛況裡 에 舉行하였다.

宗親會(花樹會)定期總 會를 江陵市內에 位置 한 그린소주앞 遊園地 松林에서 百餘 會員이 參席한 가운데 盛況裡 에 舉行하였다.

한 가운데 盛況裡에 開 催하였다. 第1部에 는 譜學講義를 大宗會 理事이신 得榮理事가 서 金氏의 源流와 敬順 大王九王子分貫錄 및 忠烈公派系를 說明하 고 領相公諱錫 遺跡記 와 金錫公(槐山陵村) 의 由來에 對한 講義를 마친다음 定期總會에 들어가 主簿會長의 人 事가 있는 다음 泰榮總 務로부터 94年度 事業 報告와 財務決算報告 95年度 豫算案 等을 滿 場一致로 通過하고 中 食을 들며 余談을 나누 고 下午三時項 散會하 였다.

宗親會(花樹會)定期總 會를 江陵市內에 位置 한 그린소주앞 遊園地 松林에서 百餘 會員이 參席한 가운데 盛況裡 에 舉行하였다.

宗親會(花樹會)定期總 會를 江陵市內에 位置 한 그린소주앞 遊園地 松林에서 百餘 會員이 參席한 가운데 盛況裡 에 舉行하였다.

宗親會(花樹會)定期總 會를 江陵市內에 位置 한 그린소주앞 遊園地 松林에서 百餘 會員이 參席한 가운데 盛況裡 에 舉行하였다.

宗親會(花樹會)定期總 會를 江陵市內에 位置 한 그린소주앞 遊園地 松林에서 百餘 會員이 參席한 가운데 盛況裡 에 舉行하였다.

宗親會(花樹會)定期總 會를 江陵市內에 位置 한 그린소주앞 遊園地 松林에서 百餘 會員이 參席한 가운데 盛況裡 에 舉行하였다.

身上形便에 依하여 常 任齋有司職을 依願免 職함에 있어 光得宗親 은 多年間 常任齋有司 職에 있으면서 忠烈公 할아버님과 竹州朴氏 할아버님의 墓所와 影幀 閣을 비롯하여 兩齋室 및 神道碑閣을 隨時 巡察 하고 管理人의 指揮監 督에 힘쓰고 時享奉行 等 宗事全般에 亶하여 生業을 不顧하고 말은 바 所任을 다한 崇祖睦 族의 精神이 큰 宗親인 으로 其間에 勞苦에 對 하여 깊은 感謝를 드리 는 바입니다.

宗親會(花樹會)定期總 會를 江陵市內에 位置 한 그린소주앞 遊園地 松林에서 百餘 會員이 參席한 가운데 盛況裡 에 舉行하였다.

宗親會(花樹會)定期總 會를 江陵市內에 位置 한 그린소주앞 遊園地 松林에서 百餘 會員이 參席한 가운데 盛況裡 에 舉行하였다.

宗親會(花樹會)定期總 會를 江陵市內에 位置 한 그린소주앞 遊園地 松林에서 百餘 會員이 參席한 가운데 盛況裡 에 舉行하였다.

宗親會(花樹會)定期總 會를 江陵市內에 位置 한 그린소주앞 遊園地 松林에서 百餘 會員이 參席한 가운데 盛況裡 에 舉行하였다.

宗親會(花樹會)定期總 會를 江陵市內에 位置 한 그린소주앞 遊園地 松林에서 百餘 會員이 參席한 가운데 盛況裡 에 舉行하였다.

宗親會(花樹會)定期總 會를 江陵市內에 位置 한 그린소주앞 遊園地 松林에서 百餘 會員이 參席한 가운데 盛況裡 에 舉行하였다.

宗親會(花樹會)定期總 會를 江陵市內에 位置 한 그린소주앞 遊園地 松林에서 百餘 會員이 參席한 가운데 盛況裡 에 舉行하였다.

宗親會(花樹會)定期總 會를 江陵市內에 位置 한 그린소주앞 遊園地 松林에서 百餘 會員이 參席한 가운데 盛況裡 에 舉行하였다.

宗親會(花樹會)定期總 會를 江陵市內에 位置 한 그린소주앞 遊園地 松林에서 百餘 會員이 參席한 가운데 盛況裡 에 舉行하였다.

宗親會(花樹會)定期總 會를 江陵市內에 位置 한 그린소주앞 遊園地 松林에서 百餘 會員이 參席한 가운데 盛況裡 에 舉行하였다.

宗親會(花樹會)定期總 會를 江陵市內에 位置 한 그린소주앞 遊園地 松林에서 百餘 會員이 參席한 가운데 盛況裡 에 舉行하였다.

消息

按廉使派 金泰榮宗親 은 勞動部 天安地方事 務所長으로 5월 3日 부로 榮轉하였기에 알 려드립니다.

宗親會(花樹會)定期總 會를 江陵市內에 位置 한 그린소주앞 遊園地 松林에서 百餘 會員이 參席한 가운데 盛況裡 에 舉行하였다.

宗親會(花樹會)定期總 會를 江陵市內에 位置 한 그린소주앞 遊園地 松林에서 百餘 會員이 參席한 가운데 盛況裡 에 舉行하였다.

宗親會(花樹會)定期總 會를 江陵市內에 位置 한 그린소주앞 遊園地 松林에서 百餘 會員이 參席한 가운데 盛況裡 에 舉行하였다.

宗親會(花樹會)定期總 會를 江陵市內에 位置 한 그린소주앞 遊園地 松林에서 百餘 會員이 參席한 가운데 盛況裡 에 舉行하였다.

宗親會(花樹會)定期總 會를 江陵市內에 位置 한 그린소주앞 遊園地 松林에서 百餘 會員이 參席한 가운데 盛況裡 에 舉行하였다.

宗親會(花樹會)定期總 會를 江陵市內에 位置 한 그린소주앞 遊園地 松林에서 百餘 會員이 參席한 가운데 盛況裡 에 舉行하였다.

祝當選

開城尹公派 容郁宗 親께서 이번 地自體選 舉에서 江原道 平昌郡 守에 當選되었음을 祝 賀드리며 宗親들께 謹 리 알립니다.

宗親會(花樹會)定期總 會를 江陵市內에 位置 한 그린소주앞 遊園地 松林에서 百餘 會員이 參席한 가운데 盛況裡 에 舉行하였다.

宗親會(花樹會)定期總 會를 江陵市內에 位置 한 그린소주앞 遊園地 松林에서 百餘 會員이 參席한 가운데 盛況裡 에 舉行하였다.

宗親會(花樹會)定期總 會를 江陵市內에 位置 한 그린소주앞 遊園地 松林에서 百餘 會員이 參席한 가운데 盛況裡 에 舉行하였다.

宗親會(花樹會)定期總 會를 江陵市內에 位置 한 그린소주앞 遊園地 松林에서 百餘 會員이 參席한 가운데 盛況裡 에 舉行하였다.

宗親會(花樹會)定期總 會를 江陵市內에 位置 한 그린소주앞 遊園地 松林에서 百餘 會員이 參席한 가운데 盛況裡 에 舉行하였다.

宗親會(花樹會)定期總 會를 江陵市內에 位置 한 그린소주앞 遊園地 松林에서 百餘 會員이 參席한 가운데 盛況裡 에 舉行하였다.

公告

依願免職 安東常任齋有司를 말았던 光得宗親이 一

宗親會(花樹會)定期總 會를 江陵市內에 位置 한 그린소주앞 遊園地 松林에서 百餘 會員이 參席한 가운데 盛況裡 에 舉行하였다.

宗親會(花樹會)定期總 會를 江陵市內에 位置 한 그린소주앞 遊園地 松林에서 百餘 會員이 參席한 가운데 盛況裡 에 舉行하였다.

宗親會(花樹會)定期總 會를 江陵市內에 位置 한 그린소주앞 遊園地 松林에서 百餘 會員이 參席한 가운데 盛況裡 에 舉行하였다.

宗親會(花樹會)定期總 會를 江陵市內에 位置 한 그린소주앞 遊園地 松林에서 百餘 會員이 參席한 가운데 盛況裡 에 舉行하였다.

宗親會(花樹會)定期總 會를 江陵市內에 位置 한 그린소주앞 遊園地 松林에서 百餘 會員이 參席한 가운데 盛況裡 에 舉行하였다.

宗親會(花樹會)定期總 會를 江陵市內에 位置 한 그린소주앞 遊園地 松林에서 百餘 會員이 參席한 가운데 盛況裡 에 舉行하였다.

訃音

大宗會 顧問이시며 前翼元公派會長이신 榮會氏께서 老患으로 지난 4월 20日 自宅에 서 別世하셨다.

宗親會(花樹會)定期總 會를 江陵市內에 位置 한 그린소주앞 遊園地 松林에서 百餘 會員이 參席한 가운데 盛況裡 에 舉行하였다.

宗親會(花樹會)定期總 會를 江陵市內에 位置 한 그린소주앞 遊園地 松林에서 百餘 會員이 參席한 가운데 盛況裡 에 舉行하였다.

宗親會(花樹會)定期總 會를 江陵市內에 位置 한 그린소주앞 遊園地 松林에서 百餘 會員이 參席한 가운데 盛況裡 에 舉行하였다.

宗親會(花樹會)定期總 會를 江陵市內에 位置 한 그린소주앞 遊園地 松林에서 百餘 會員이 參席한 가운데 盛況裡 에 舉行하였다.

宗親會(花樹會)定期總 會를 江陵市內에 位置 한 그린소주앞 遊園地 松林에서 百餘 會員이 參席한 가운데 盛況裡 에 舉行하였다.

宗親會(花樹會)定期總 會를 江陵市內에 位置 한 그린소주앞 遊園地 松林에서 百餘 會員이 參席한 가운데 盛況裡 에 舉行하였다.